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시설의 건축 및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해외 건축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

## A Study of the Architectur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Cultural Facilities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Focusing on Designed by Overseas Architects -

김봉애\*

Kim, Bong-Ae,

김수희\*\*

Kim, Su-Hee

Abstract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rchitectur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cultural facilities designed by overseas architects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study methods included empirical research through literature study and a field investigation. The resulting data were collected and subjected to architectural and spatial analyse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indicated that the subject cultural facilities were equipped with the best geographical conditions for appreciation of the Nature of Jeju and their low-rise elevation scale conformed to the natural landscape of Jeju. However, the facilities were mostly dedicated for members and they lacked communication about the cultural facilities with Jeju residents.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indicated that the plane types of the subject cultural facilities were mostly square and linear, their section types were slant ground and flatland, their visiting type was selective visiting, and their light source types were sidelight and top light. The spatial characteristics indicated that most of the subject cultural facilities had characteristics of dynamic space in kinematic dimensions; many cases tended to strengthen hierarchy by the formation of multi-layered space in a hierarchical dimension, and in all cases, the expression of space was attempted through light in a phenomenological dimension.

주요어 : 문화시설, 건축 특성, 공간 특성.

Keyword : Cultural Facilities,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Spatial Characteristics.

### I. 서론

세계 각국은 국제교류를 통하여 글로벌화되었고, 세계의 도시들은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도시 간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의 브랜드이미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99년부터 급변하는 세계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경제 개방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개발 중에 있으며, 산업투자 및 관광객 유치에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도

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을 위해 대규모 단지형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건축물에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도 증대되고 있다.

또한, 세계의 도시들은 국가의 브랜드이미지를 향상시키려는 성장전략의 하나로 문화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각 도시들은 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문화향유 욕구도 증가됨에 따라 1차원적 문화체험에서 다차원적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문화시설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시설은 그 지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문화시설의 고유한 문화적 아이덴티티에 근거하는 디자인이 요구된다. 특히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주의 지역적 및 문화적 특성과 더불어 급속한 국제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테마가 형성되어 있어 이를 활용한 많은 문화시설들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한국에서는 해외 건축가들의 건축작품들이 활발히 건축되기 시작하였다.

\* 주저자 :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주거·가족복지전공, 학술박사

\*\* 공동저자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수료

전자우편주소: suhee@jejunu.ac.kr

이 논문은 2014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지원사업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해외 건축가들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2013년 2월 월간지<SPACE>에서 건축 전문가 100인이 선정한 '한국현대건축명작 30선'에서 12명의 해외 건축가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수도권 지역에 이어 지방에까지 랜드마크적 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자본가, 혹은 건축주들이 해외 유명 건축가들의 명성에 기대어 그들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작품들과 비슷한 건물을 주문하는 '패스트 카피(fast copy)' 현상이 발생<sup>1)</sup>하고 있어 해외 건축가들의 지역성 표출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주도도 국제자유도시 및 세계환경수도 지정으로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규모가 증대되면서 문화시설을 비롯하여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에 대해 해외건축가들의 작품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주지역에 해외 건축가가 설계한 문화시설은 대부분 특정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고, 제주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에 건축된 문화시설들은 지역민과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에 설립·운영되고 있는 해외 건축가들의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건축적·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다.

## II. 이론적 고찰

### 1. 문화시설의 개념 및 성격

문화시설의 개념은 '문화'라는 용어의 다양성과 복합성으로 인해 법령으로 규정한 정의를 따르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준에 관한 규칙」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각각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항에서는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보급, 문화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에서는 문화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하여 실시하는 시설<sup>2)</sup>을 말한다.

고상균은 그의 저서에서 "오래된 문명국가의 모든 도

시는 신전과 공공공간과 문화공간 등이 도시의 기본 틀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공공문화시설은 이러한 도시구조에서 공동체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부여하는 정신적 하부구조이고, 집합적 문화행위가 일어나는 공간 영역이다. 지역사회의 문화시설은 지역주민이 구체적인 예술활동을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참여해 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지역 문화시설의 역할은 주민 자신의 주체성을 높이고 문화적 교양을 닦고, 건강과 협동을 배우며 경험하는 학습센터이며 주민 자체의 능력을 개발하는 장소이다<sup>3)</sup>.

최근의 문화시설은 단일기능을 수행하는 1차원적 공간에서 체험공간<sup>4)</sup>이나 다목적 기능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복합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문화시설은 문화적 감성의 체험과 기회제공 그리고 문화 욕구의 만족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시설은 지역 경제를 자극하는 요소로, 지역민을 통합하는 매개체 또는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신뢰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그 역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sup>5)</sup>.

### 2. 건축가 고찰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제주지역에 문화시설을 설계한 해외 건축가는 이타미 준(Itami Jun), 마리오 보타(Mario Botta), 안도 다다오(Ando Tadao)가 있다. 이 절에서는 문화시설의 사례분석을 위해 이들의 건축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2.1 이타미 준의 건축적 특성

이타미 준은 재일 한국인 건축가로 1982년 온양민속박물관의 구정 아트센터(구정 미술관)를 비롯하여 서울의 각인의 탑(1988년), 일본 홋카이도의 석채교회(1991년) 제주의 포도호텔(2002년) 및 방주교회(2009년) 등이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그의 작품특징은 대지로부터 얻어진 돌, 흙, 나무, 철 등을 사용하여 무(無)의 소재로써 토착적인 재료를 살리고, 가공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돌은 자연스럽게 생긴 형태를 쌓아 올리고 흙은 자체의 모습 또는 블록으로 바꾸어 사용하면서 현대 건축으로서 추상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소재의 존재감을 가장 두드러지게 하였다. 이것은 그야말로 지역에 대한 텍스트를 획득하는 것이지만 소재와 색과 빛을 기초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다<sup>6)</sup>. 또한 이타미 준은 건축과 미술과

1) 김아미(2014.06.30). '한반도 건축, 큰상 받았지만... 시대 증명할 뭔가 결핍, '해럴드경제, 기사내용 요약.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에서 지정하는 문화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③ 「지방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④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⑥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3) 고상균(2003)., 건축설계론, 광문각, 366-367.

4) 체험공간은 인간의 삶이 투영된 공간으로 공간은 인간과 무관하지만 공간이용자가 그 공간을 체험하는 방식에 따라 지각하는 공간의 느낌이 변화하게 된다. 공간의 체험은 인간이 공간과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지각하게 한다.

5) 송은옥(2005). 문화시설을 활용한 도시마케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표 1> 조사대상 건축가가 설계한 국내 문화시설

개관년도	건축가	시설명	위치	입면규모	설계컨셉
1982	이타미 준	온양민속박물관 구정미술관 (현 구정 아트센터)	충남 아산	지상2층	총무공의 땅이라는 상징성을 반영하여 지붕을 거북선처럼 디자인하고 내부는 'ㄱ'자형 가옥구조를 모티브 하였으며, 아산일대에 풍부한 돌을 활용해 돌담을 조성함
2003	마리오 보타	교보타워	서울 강남	지하8층 지상25층	현대건축운동의 기하학적이고 상징적인 건물형태와 인간육구의 민감한 감정을 결합시키고 강한 중심축을 가진 유기적 형태를 유추하며, 대칭성의 특징을 가진 건축의 고전언어와 연계된 형태를 보임
2004	마리오 보타	삼성미술관 리움 (뮤지엄1)	서울 용산	지하3층 지상4층	단순한 직육면체와 역원추형태의 매스가 대비되면서 단순한 볼륨의 조화를 이루고, 휴과 불로 만들어진 외벽의 테라코타 벽돌은 한국의 도지를 상징하여 전통의 뿌리와 힘을 느끼게 함
2005	이타미 준	학교재 화랑 (현 갤러리 이즈)	서울 인사동	지하1층 지상4층	자연재료를 통해 건축물에 독특한 신비로움을 벗어내는 것을 목표로 가로줄의 밝은 색 목재로 전통 거리의 옛스러움과 모던함을 조화시킴
2013	안도 다다오	뮤지엄 산(SAN)	강원도 원주	지하1층 지상2층	계절의 변화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전원형 뮤지엄으로 건물 주변을 물이 둘러싸고 있어 물위에 떠 있는 느낌을 주었으며, 건물내부는 노출콘크리트와 빛을 사용하여 인간의 감각을 자극시킴
2014	안도 다다오	재능교육 혜화문화센터	서울 혜화동	지하3층 지상4층	복잡한 도심지 안의 진입도로에서 보이는 V자형 기둥은 건물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돋보이게 하고, 사선형으로 떠받쳐진 콘크리트 구조체가 대지 안쪽으로 이어지며 중정을 중심으로 'ㄱ'자 형태를 이루어 소통하는 열린공간을 표현함

접목시키고 지역의 재료 및 색을 사용하여 건축물을 예술작품으로 표현하였으며, 특히 지역성과 토속성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2.2 마리오 보타의 건축적 특성

마리오 보타는 스위스 건축가로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1989년), 서울 교보타워(2003년), 서울 삼성미술관 리움(2004) 등이 대표작이다. 김신철과 김광배는 "마리오 보타의 건축수법으로 역사적 건축에서 비롯되는 단순한 기하학적 도형의 사용, 공간구성과 빛의 연출, 대칭-비대칭 기법, 순수하고 지속적인 재료의 사용, 대지와 지역성의 반영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8)</sup>. 그 지역의 자연에서 얻은 소재, 돌이나 흙과 같은 변치 않는 재료, 빛이 주는 극적 효과를 건축에 구현하는데 관심을 두고 건축물을 통해 지역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견고한 중량감과 강렬한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

2.3 안도 다다오의 건축적 특성

안도 다다오는 일본 건축가로 오사카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물의 교회(1988년), 빛의 교회(1989년), 나오시마 현대미술관(1995), 록고 집합주택(1983~1999년) 등을 설계하였고, 독일의 비트라 콘퍼런스 파빌리온(Vitra Conference Pavilion, 1993년) 등의 해외건축물

을 비롯하여 2000년대 중반 한국에 진출하여 제주에 글라스 하우스(Glass House, 2008년)와 지니어스 로사이(Genius Loci, 2008년), 본태 박물관(2012년), 강원도 원주에 뮤지엄 산(2013년), 서울에 재능교육 혜화문화센터(2014년) 등 왕성한 건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안도 다다오의 건축특징은 기하학적 패턴, 물의 사용, 빛의 연출, 정원이나 중정을 통한 자연의 유입, 콘크리트와 유리의 지속적인 탐구, 자연 소재의 색을 유지하려는 노력 등이 있다.

2.4 조사대상 건축가가 설계한 국내 문화시설

<표 1>은 조사대상 문화시설을 설계한 건축가들의 국내 문화시설로 1982년에 이타미 준이 온양민속박물관 내 구정 아트센터를 비롯하여 2003년 마리오 보타의 교보타워, 2004년 마리오 보타의 삼성미술관 리움(뮤지엄1), 2005년 이타미 준의 학교재 화랑이 설계되었고, 안도 다다오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상륙하면서 2013년에 한솔뮤지엄 뮤지엄 산, 재능교육 혜화문화센터를 설계하였다. 2003년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교보타워를 제외하면 모두 4층 이하의 입면규모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제주지역의 문화시설 중 해외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건축물 중에서 문화시설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문화시설과 해외 건축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조사대상

6) C3편집부(2002). 건축과 환경 C3 Korea, C3디자인그룹.  
7) 김홍철(2004). 교보타워, 대한건축학회지, 48(9):, 91.  
8) 김신철, 김광배(2010). 마리오 보타의 작품에 나타난 건축수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6(10): 114.

<표 2>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건축개요-1

개요번호	I-1	I-2	I-3	I-4
건축가	이타미 준	이타미 준	이타미 준	이타미 준
시설명	핀크스 비오토피아 물 미술관	핀크스 비오토피아 돌 미술관	핀크스 비오토피아 바람 미술관	핀크스 비오토피아 두손 미술관
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귀포시 안덕면	서귀포시 안덕면	서귀포시 안덕면
입지유형	도심외곽형	도심외곽형	도심외곽형	도심외곽형
입지여건	단지 내 부속시설	단지 내 부속시설	단지 내 부속시설	단지 내 부속시설
방문여건	회원전용	회원전용	회원전용	회원전용
입면규모	지상1층	지상1층	지상1층	지하1층/지상2층
공간구성	•지상1층: 전시공간	•지상1층: 전시공간	•지상1층: 전시공간	•지상2층: 진입공간 •지상1층: 복도, 화장실
외장재료	제주석	철, 유리	목재	스틸, 유리
외장색채	회색계열	붉은색계열	갈색계열	검은색계열
특성	하나의 매스를 타원형으로 제거하여 상부의 수평면을 통해 하늘의 움직임을 수면에 투영시켰으며 열린 하늘을 통해 하늘을 느끼고, 그 아래 물을 명상하도록 설계함	미술관 앞에 손 모양의 돌 조각을 올려놓아 가까이 있는 손의 조각과 멀리 보이는 산방산이 함께 대비되어 근정 및 원정의 리듬감을 명상을 가능하도록 설계함	좁고 긴 형태로 되어 있는 긴 복도를 걸을 때 외부의 나무 판 틈새로 바람이 통과하는 소리를 통해 신비로운 자연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함	글라스 그대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형태로 산방산이라는 자연의 조형을 향해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밖에서 바라보이는 기도하는 자의 소박한 염원은 지중의 전시공간과 작품들로서 의미가 극대화 됨
외관사진				
내부사진				

주. I: 이타미 준, M: 마리오 보타, A: 안도 다다오

에 대한 시지각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건축 및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해외 건축가 문화시설의 공간계획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건축적 특성에서는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평면형태, 단면형태, 관람동선, 광원형식으로, 공간적 특성에서는 운동성·위계성·현상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을 조사·분석하였다.

**2.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개요 및 특징**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건축개요는 <표 2> 및 <표 3>과 같다. 조사대상 문화시설 8사례 중 본태 박물관을 제외한 모든 사례가 핀크스 비오토피아(Pinx Biotopia)와 휘닉스 아일랜드(Phoenix Island)의 계획단지 내 위치하고 있다. 핀크스 비오토피아는 휴양형 타운하우스 단지로 핀크스 골프클럽(Pinx Golf Club)과 포도 호텔(Podo Hotel)이 인접하고 있으며 이타미 준이 단지 내 대부분의 건물들을 설계하였다. 한라산의 생태와 화산

자원을 기반으로 한 환경보존형 주거단지이며 저층의 빌라들이 주변의 오름과 제주의 지형에 순응하게 조성되었다. 휘닉스 아일랜드는 제주의 동쪽 끝 섭지코지에 위치한 숙박, 휴양, 레저,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친화적인 해양종합리조트이다. 단지 내에는 바다와 성산일출봉을 조망할 수 있는 콘도(Condominium)인 벨라테라스(Bella Terrace)와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분양전용의 힐리우스(Hillious)를 비롯하여 글라스 하우스(Glass House), 지니어스 로사이(Genius Loci), 아고라(Agora) 등의 문화시설과 해양레포츠시설, 자연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






이타미 준은 핀크스 비오토피아 대지 안에 물 미술관(I-1), 돌 미술관(I-2), 바람 미술관(I-3), 두손 미술관(I-4)을 설계하였다<sup>9)</sup>.

핀크스 비오토피아의 물 미술관은 하나의 매스를 타원형으로 제거하여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물

9) 핀크스 비오토피아 홈페이지를 참고로 연구자가 재작성함(<http://www.thepinx.co.kr/biotopia/>)



<표 3>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건축개요-2

개요번호	M-1	A-1	A-2	A-3
건축가	마리오 보타	안도 다다오	안도 다다오	안도 다다오
시설명	휘닉스 아일랜드 아고라	휘닉스 아일랜드 글라스 하우스	휘닉스 아일랜드 지니어스 로사이	본태 박물관
위치	서귀포시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서귀포시 안덕면
입지유형	해안형	해안형	해안형	도심외곽형
입지여건	단지 내 부속시설	단지 내 부속시설	단지 내 부속시설	단일 문화시설
방문여건	회원전용	유료입장	유료입장	유료입장
입면규모	지상1층	지상2층	지하1층/지상1층	지하1층/지상2층
공간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상1층: 라운지, 화이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 샤워실</li> <li>•야외: 실외수영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상2층: 레스토랑, 전망대</li> <li>•지상1층: 커피숍, 미술관, 사무실</li> <li>•야외: 정원, 산책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상1층: 휴게실</li> <li>•지하1층: 전시공간, 기계실</li> <li>•야외: 돌·물·바람의 정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상2층: 전시공간</li> <li>•지상1층: 전시공간, 커피숍, 화장실</li> <li>•야외: 조각공원, 연못</li> </ul>
외장재료	제주석·유리	콘크리트·유리	콘크리트	콘크리트
외장색채	회색계열	회색계열	회색계열	회색계열
특성	각 공간은 지하에 묻히고 땅 위로는 유리피라미드만이 돌출된 독특한 디자인으로 천창에 매달릴 스테인리스 구(球)는 유리를 통해 들어온 빛이 굴절되어 건물 내부로 들어옴	건물 입구는 폐쇄적이고, 건물의 정면은 개방형으로 설계되었으며, 정면의 기하학적인 평면으로 일출 때 태양의 정기를 품는 형상을 보여주며 극적대비를 이룸	건물 내부로 진입하면서 돌, 바람, 물의 자연을 접하고, 가로로 열려있는 건물의 개구부를 통해 외부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으며, 지붕이 열려있는 좁은 틈으로 하늘을 감상할 수 있음	두 L자형 볼륨은 동질감을 가지면서도 단의 차를 두고 만나 다양한 공간감과 느낌을 연출하며,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재료의 단단함, 색채의 미려함, 자연과의 조화로운이 돋보임
외관사진				
내부사진				

주. I: 이타미 준, M: 마리오 보타, A: 안도 다다오

의 반사성을 통해 자연의 움직임을 느끼고, 조용히 흐르는 물소리에 자연의 서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핀크스 비오토피아의 돌 미술관은 돌의 공간은 단단한 상자, 그 암흑 속에서 의도적으로 구멍을 열어 인공적인 쇠의 꽃으로 삼았다. 그 구멍을 통해 쏟아져 들어온 이동하는 빛을 주인공으로 연출한다는 환상, 그것은 보는 사람을 통해 제한 없이 무엇인가를 연상시키는 공감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핀크스 비오토피아의 바람 미술관은 내부에 놓여져 있는 돌은 오브제로 의자이며 조용히 명상에 잠겨 바람소리를 듣는 공간을 제공한다. 핀크스 비오토피아의 두손 미술관은 돌 미술관과 절묘하게 대비되는 곳에 위치하여 한 쌍으로 보이기도 한다. 밖에서 바라보이는 기도하는 자의 소박한 염원은 지중(地中)의 엄숙한 전시공간과 작품들로서 그 의미가 극대화 될 것이다.

마리오 보타는 휘닉스 아일랜드의 대지 내에 회원 전용 클럽하우스인 휘닉스 아일랜드 아고라(M-1)를 설계하였다. 아고라의 각 공간은 지하에 묻히고 땅 위로는 유리피라미드만이 돌출된 독특한 디자인으로써, 건물 내 중앙에 광장을 두고 그 주위에 실을 배치하여 오픈된 광장에 피라미드 천창을 통해 빛이 유입된다<sup>10)</sup>.

안도 다다오는 휘닉스 아일랜드 대지 내에 복합문화 시설인 글라스 하우스(A-1)와 명상센터인 지니어스 로사이(A-2), 핀크스 비오토피아와 인접해 있는 본태 박물관(A-3)을 설계하였다.

휘닉스 아일랜드의 글라스 하우스는 기하학적이고 절제된 조형미로 건물이기보다는 모던한 현대 조형물과

10) 휘닉스 아일랜드 홈페이지를 참고로 연구자가 재작성함(<http://www.phoenixisland.co.kr/>)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건물 입구가 콘크리트 스크린 벽에 의해 보이지 않아 폐쇄적이다. 또한 1층 바닥은 입구보다 3.6미터나 높은 곳에 위치해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상상할 수 없으며, 좌우 건물과 2층으로 둘러싸인 1층 데크에 올라서야 눈앞에 넓고 푸른 바다가 갑자기 펼쳐지게 된다. 건물의 정면은 뒷면의 폐쇄성과는 정반대로 전체가 유리로만 마감된 개방형이다. 정동을 향해 손을 벌린 기하학적인 평면이다.

휘닉스 아일랜드의 지니어스 로사이는 입구의 차단 벽과 연못을 통과해 주변을 덮고 있는 현무암 사잇길을 걸어가며 감상하며, 타원형의 꽃밭에서는 붉은색의 빛을, 사각형의 억새밭에서는 바람과 접하도록 계획되어 과정적 공간의 감상과 자연이 조우한다. 특히 본 건물 좌우에서 쏟아지는 폭포 사이를 지나며 '에릭오어(Eric Orr)'의 작품을 연상할 수 있다. 그 비전에 따라 대지의 성격에 순응하여 공간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서로 다른 높이에서 가로로 열려 있는 건물의 개구부를 통해 노랑 유채밭과 성산일출봉을 감상하고, 지붕이 열려 있는 좁은 복도를 통해 하늘을 감상할 수 있다.

본태 박물관은 本態, 즉 본래의 형태로 인류 본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만나는 삼각과 긴 사각마당을 가진 두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공간은 전시내용과 프로그램에 맞게 이원적으로 구성하여, 제1박물관은 소박하고 인간적인 공간으로 전통 미술품과 수공예품, 제2박물관은 높이감이 강조된 공간으로 현대미술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sup>11)</sup>.

제주지역에 진출한 해외 건축가들은 이타미 준, 마리오 보타, 안도 다다오를 비롯하여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ult), 구마 겐코(Kuma Kengo), DA Group 등이 있으나 문화시설은 이타미 준, 마리오 보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하였다. 위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동부권과 서부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지유형은 해안형과 도심외곽형으로 도심지를 벗어나 제주의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하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 문화시설은 본태 박물관을 제외하면 대규모 리조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문여건도 안도 다다오의 글라스 하우스만 이용에 제한이 없었고, 안도 다다오의 본태 박물관과 지니어스 로사이는 유료 입장이며, 이타미 준의 물 미술관, 돌 미술관, 바람 미술관, 두손 미술관, 마리오 보타의 아고라는 회원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입면규모는 전체적으로 저층으로 설계되어 지형과 조화롭고, 외장재는 이타미 준의 돌 미술관이 철, 바람 미술관이 나무, 두손 미술관이 스틸을 사용하였고, 이외에 모든 조사대상에서 콘크리트와 제주석인 현무암을 사용하여 외장색채 또한 회색계열을 보이고 있다. 내·외부의 공간구성을 보면 이타미 준의 문화시설은 이타미 준의 건축적 특성인 지역성과 토속

성에 중점들 두어 제주지역의 물, 돌, 바람을 이용하였으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시의 관점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마리오 보타는 리조트 내 회원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회원들의 체력단련과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이 1층에 구성되어 있고, 안도 다다오의 지니어스 로사이는 지하의 전시공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주의 돌, 물, 바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야외시설로 조성하였고, 건축적 뷰 파인더(view finder)로 성산일출봉을 조망할 수 있다. 글라스 하우스는 복합문화시설로 1층에는 커피숍과 전시실, 2층에는 레스토랑으로 구성되었고, 야외정원을 통해 제주의 바다와 성산일출봉을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본태 박물관은 핀크스 비오토피아 단지과 인접해 있으며 유도된 동선을 따라 2동의 전시공간을 관람하면서 다채로운 건축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건축적 뷰파인더로 산방산을 조망하도록 계획되었다.

#### IV.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건축적 특성




##### 1.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평면형태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평면형태는 <표 4>과 같이 정방형, 선형, 교차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방형은 평면형태의 기본형으로 공간전개에 있어서 기능배분에 유리하고, 기하학적 매스를 통한 상징적 형태가 가능하다. 또한 구조가 단순하므로 시스템설비의 설치가 용이하여 경제적이지만 공간들의 유기적 연결이 어렵고 동선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선형은 정방형의 기본형 매스가 변형된 형태로 일조량이 공간 내부로 균일하게 유입되고, 단순한 구조로 인해 시스템설비의 설치가 용이하여 경제적이어서 관리의 효율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공간확장 방향이 제한적이며 공간의 유기적 연결이 어렵고 동선이 길어지거나 혼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벽이 길어지면 단조로워지고, 시각적으로 지루해 질 수 있다. 교차선형은 선형의 매스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형태로 진입방향이 자유롭고 확장방향이 다양하며 공간의 기능배분에 유리하지만 굴절부분의 일조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구조가 복잡해져 시스템설비의 설치가 어려우며 관리상 통제에 불리할 수 있다.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평면형태에서 정방형은 이타미 준의 물 미술관, 마리오 보타의 아고라, 안도 다다오의 지니어스 로사이이고, 선형은 이타미 준의 돌 미술관과 바람 미술관, 두손 미술관이며, 교차선형은 안도 다다오의 글라스 하우스와 본태 박물관이다. 정방형은 기하학적 형태를 선호하는 세 명의 건축가 모두에서 나타났지만 선형은 이타미 준, 교차선형은 안도 다다오의 사례에서만 나타났다.

11) 본태 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로 연구자가 제작성함 (<http://www.bontemuseum.com/>)

<표 4>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평면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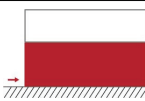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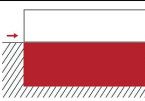

구분	정방형	선형	교차선형
개념도			
특징	평면형태의 기본형으로 공간의 기능배분에는 유리하지만 유기적 연결이 어렵고 동선혼란이 예상되는 유형	기본형 매스의 변형으로 일조량이 균일하지만 공간확장이 제한적이고 장면이 길어지면 시각적으로 지루해지는 유형	선형매스가 중첩된 형태로 진입방향이 다양하고 기능배분에 유리하지만 시스템 설비의 설치와 관리가 불리한 유형
사례	I-1, M-1, A-2	I-2, I-3, I-4	A-1, A-3

주. I: 이타미 준, M: 마리오 보타, A: 안도 다다오

2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단면형태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단면형태는 <표 5>와 같이 전시공간의 위치를 기준으로 평지형, 지하형, 경사지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평지형은 전시공간의 위치가 대지 상부에 있는 유형으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공간계획이 자유롭다. 지하형은 전시공간의 위치가 지하에 있어 1층에서 지하로 유도된 동선을 따라 관람하는 형태로 동선이 길어질 수 있으나 동선을 따라 공간을 진입하면서 다채로운 공간체험을 할 수 있다. 경사지형은 전시공간의 위치가 경사지에 있어 1층으로 진입하거나 지하층의 평지로 진입이 가능하다.

<표 5>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단면형태

구분	평지형	지하형	경사지형
개념도			
특징	전시공간이 대지의 상부에 위치한 유형	전시공간이 지하에 위치한 유형	전시공간이 경사지에 위치한 유형
사례	I-2, I-3, A-1	A-2	I-1, I-4, M-1, 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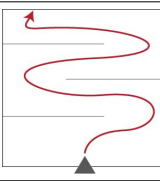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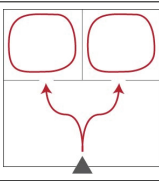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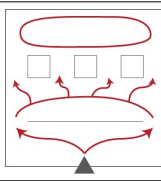
주. I: 이타미 준, M: 마리오 보타, A: 안도 다다오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단면형태에서 평지형은 이타미 준의 돌 미술관과 바람 미술관, 안도 다다오의 글라스 하우스이고, 지하형은 안도 다다오의 지니어스 로사이이며, 경사지형은 이타미 준의 물 미술관과 두손 미술관, 마리오 보타의 아고라, 안도 다다오의 본태 박물관이다. 단면형태에서 경사지형이 많이 나왔는데 이는 경사가 많은 제주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하형은 안도 다다오의 지니어스 로사이에서만 보였는데, 이는 지하에 전시공간을 두는 안도 다다오의 건축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3.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관람동선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관람동선은 선행연구<sup>12)</sup>의 전시 순회 및 동선계획을 참고하여 <표 6>과 같이 유도관람형, 선택관람형, 자유관람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도관람형은 문화시설에서 제시하는 동선에 따라 관람하는 유형으로 정해진 분류방식에 따라 연속적으로 구성된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다. 경로 선택이 쉽고 소규모 문화시설에 적합한 유형으로 동선선택에 강제성을 띄며 관람자들의 경험이 비슷하고 전시공간 중 한 곳만 폐쇄해도 동선이 절단되는 단점이 있다. 선택관람형은 선택 가능한 전시공간과 진입공간 사이에 매개공간이 존재하여 이 곳에서 전시공간을 선택하여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객은 특정한 동선을 따라가지 않아도 되지만 최소한의 유도동선이 있어야 동선의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일부 전시공간의 일시적 폐쇄가 가능하고 매개공간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유관람형은 전시공간을 전체적으로 오픈하여 관람자의 선호에 따라 전시물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유형으로 자유로운 평면에서 볼 수 있으며, 전시기획물의 주제 및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전시물과 동선을 계획할 수 있다. 다양한 관람패턴과 경험이 형성될 수 있으나 관람객은 전시물의 분류나 질서를 찾기 어려우며 규모가 커질 경우, 혼란을 줄 수 있다.

<표 6>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관람동선

구분	유도관람형	선택관람형	자유관람형
개념도			
특징	의도된 동선을 따라 관람하는 형식으로 경로선택이 쉽지만 관람자의 경험이 단순한 유형	매개공간을 통해 관람순서를 관람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유도동선이 요구되는 유형	전시공간이 오픈되어 관람자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지만 동선혼란이 우려되는 유형
사례	A-2, A-3	I-1, I-3, M-1, A-1	I-2, I-4

주. I: 이타미 준, M: 마리오 보타, A: 안도 다다오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관람동선에서 유도관람형은 안도 다다오의 지니어스 로사이와 본태 박물관이고, 선택관람형은 이타미 준의 물 미술관과 바람 미술관이며,

12) 박철민, 홍지호(2008). 제주지역 테마박물관의 공간 구성과 관람동선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0(2): 53-61.

안영배, 원정수, 김광훈, 이법재, 임창복(2009). 건축계획론, 기문당, 682-683.

이광노, 안종혁, 이정덕, 유희준, 윤도근(2012). 건축계획, 문운당, 421.

자유관람형은 이타미 준의 돌 미술관과 두손 미술관이 다. 이타미 준은 선택관람형과 자유관람형을 나타내고 있다.

**4.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광원형식**

문화시설에서 전시공간의 조명 및 채광은 전시공간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공간계획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다할 수 없다<sup>13)</sup>.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광원형태를 분석하는 것은 전시공간의 흐름을 인지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표 7>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광원형식

구분	측광형	정광형	폐쇄형
개념도			
특징	벽면에서 자연광이 유입되는 형태로 전면형, 고측형, 하부형으로 나타나며 날씨에 따른 조도변화로 다채로운 공간연출이 가능한 유형	천장에서 자연광이 유입되어 자연광의 변화에 따른 공간연출이 가능하지만 누수의 우려가 있는 유형	자연광을 폐쇄하고 인공조명에 의지하는 형태로 전시물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으나 시각적 압박감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유형
사례	I-2, I-3, M-1, A-1, A-2, A-3	I-1, I-2, I-4, M-1	A-2, A-3

주. I: 이타미 준, M: 마리오 보타, A: 안도 다다오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광원형식은 선행연구<sup>14)</sup>의 광원계획을 참고하여 자연광의 유입을 기준으로 <표 7>과 같이 측광형, 정광형, 폐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측광형은 측면에서 자연광이 유입되는 형태로 벽면에서 유입되는 광원의 양과 위치에 따라 전면 유입, 고측창을 통한 유입, 하부의 창을 통한 유입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날씨에 따른 조도의 변화로 다채로운 전시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정광형은 지붕의 수평면에서 자연광이 유입되는 형태로 날씨에 따른 조도의 변화로 전시공간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으나 누수의 가능성이 있다. 폐쇄형은 자연광의 유입을 통제하고 공간 전체를 인공조명에 의지하는 형태로 전시물의 효과적 연출과 조광이 자유롭고 천장높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자연광에 의한 전시물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으나 밀실의

형태로 인한 시각적 압박감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광원형식에서 광원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측광형은 이타미 준의 돌 미술관과 바람 미술관, 안도 다다오의 글라스 하우스와 지니어스로사이, 본태 박물관이고, 정광형은 이타미 준의 물 미술관, 돌 미술관, 두손 미술관, 마리오 보타의 아고라이며, 폐쇄형은 마리오 보타의 아고라, 안도 다다오의 지니어스 로사이와 본태 박물관이었다. 이타미 준은 공간 내부로 빛이 유입되는 것을 활용하였고, 마리오 보타는 아고라의 매개공간인 천장의 유리피라미드를 통해 빛이 내부로 들어오고, 이를 벽면 전체에서 유입되도록 계획했다. 안도 다다오는 최소한의 빛을 실내로 유입하여, 인공조명 또한 소극적으로 도입하여 공간 내부의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건축가별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건축적 특징을 종합하면 <표 8>과 같다.

<표 8> 건축가별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건축적 특징

	이타미 준	마리오 보타	안도 다다오
평면형태	정방형, 선형	정방형	정방형, 교차선형
단면형태	평지형, 경사지형	경사지형	평지형, 지하형, 경사지형
관람동선	선택관람형, 자유관람형	선택관람형	유도관람형, 선택관람형
광원형식	측광형, 정광형	측광형, 정광형	측광형, 폐쇄형

**V.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공간적 특성**

공간은 운동성, 위계, 현상적 특성을 갖는다<sup>15)</sup>. 운동성은 공간의 물리적 차원에서 고정된 공간적 상황에서 시각적인 움직임이 작용하면 동적 공간이 되며, 공간적 요소와 시간적 요소가 함께 움직이거나 시각적 움직임이 없으면 정적이 된다. 공간을 동적으로 이르게 하는 요소로는 방향성, 각도, 질감 등의 요인이 있으며, 이 요소들이 복합되어 공간의 운동성이 표현된다. 동적 공간이 공간의 힘을 확산시키는 작용을 한다면 정적 공간은 공간의 힘을 집중시키는 작용을 하여 공간자체에 상징성을 강하게 한다. 위계는 공간의 질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어떠한 공간이든 주변과의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들 사이에는 질서가 존재한다. 공간 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뚜렷한 경우가 있고, 구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다. 내부와 외부의 공간 사이에 매개공간을 두어 중간적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현상적 공간은 공간을 물리적 공간이 아닌 현상으로 해석하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공간 내부에서 특정 매개체가 인간의 감각과 결합하여 그 공간을 다차원적으로 확산시킨다. 이 매개체는 인간의 지각적 감각을 활성화시키는 역할

13) 안영배, 원정수, 김광훈, 이범재, 임창복(2009). 건축계획론, 기문당, 699.

14) 안영배, 원정수, 김광훈, 이범재, 임창복(2009). 건축계획론, 기문당, 700.

이광노, 안중혁, 이정덕, 유희준, 윤도근(2012). 건축계획, 문운당, 447-449.

15) 대한건축학회(2003). 건축공간론, 기문당, 36-44.의 내용을 참고로 재구성함



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빛, 소리, 풍경 등이 있는데 이들은 시간성을 가지고 있어 공간의 동적 특성과 결합하게 된다. 빛, 소리, 풍경 등이 있는데 이들은 시간성을 가지고 있어 공간의 동적 특성과 결합하게 된다. 빛은 내부공간에서 채광과 인공광의 조절을 통해 밝고 어두움을 표현하며, 공간의 중심을 형성하기도 한다. 소리는 공간의 물리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흡음이 되기도 하고 음을 집중시키기도 한다. 주로 공연장과 콘서트홀에서 수직면과 수평면의 레벨을 조절하여 음향효과를 극대화시키기도 하며 종교건축에서 음의 반향과 집중으로 극적 공간을 연출하기도 한다. 풍경은 건축공간에서 차경을 통해 도입된다. 자연은 시간과 날씨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를 공간에 유입하여 공간의 동적 특성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위와 같은 공간적 특성을 조사대상 문화시설에 적용하면 <표 9>와 같다. 공간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운동성 차원에서는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대부분이 동적 공간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위계적 차원에서는 중간공간의 형성으로 위계를 강화하는 사례의 빈도가 많았다. 현상적 차원에서는 조사대상 문화시설 모두가 빛을 통해 공간을 표현하고 있었고 풍경을 도입하는 사례가 그 다음이었으며 소리를 사용하는 사례는 적게 나타났다.

<표 9>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공간적 특성

구분	운동성 차원		위계적 차원		현상적 차원		
	동적	정적	통합 공간	중간 공간	빛	소리	풍경
I-1	●	○	●	×	●	○	●
I-2	●	○	●	×	●	×	●
I-3	●	○	●	×	○	●	×
I-4	●	●	×	●	●	×	×
M-1	●	×	×	●	●	×	●
A-1	●	×	×	●	●	●	●
A-2	●	×	×	●	●	●	●
A-3	●	×	×	●	●	○	●

주. ●: 강함, ◎: 보통, ○: 약함, ×: 불일치  
I: 이타미 준, M: 마리오 보타, A: 안도 다다오

건축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타미 준은 지역의 재료, 색, 자연을 건축물에 도입하는 특징을 보이며 있었는데, 이러한 특징은 현상적 차원에서 공간의 움직임에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해석된다. 조사대상 문화시설에서 수평면과 수직면의 물리적 요소의 활용 관점에서는 정적공간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빛, 물, 바람, 풍경을 공간 내부로 끌어들이 공간을 다이나믹하게 구성함으로써 동적효과를 강하게 부여하여 공간을 드라마틱하고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타미 준의 조사대상 문화시설에서는 위계적 차원에서의 중간공간은 핀크스 비오토피아의 두손 미술관(I-4)에만 나타났고, 물 미술관(I-1), 돌

미술관(I-2), 바람 비술관(I-3)은 건축물 자체가 전시공간이 되는 통합적 공간을 조성하였다. 마리오 보타는 휘닉스 아일랜드의 아고라에서 빛과 자연이라는 현상적 요소를 통해 공간을 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공간의 물리적 요소를 최대화하였다. 유리 피라미드에 집중되는 빛은 중간공간에서 모여져 공간 내부의 전면창을 통해 깊숙이 유입되며, 전면창을 통해 제주의 동쪽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안도 다다오는 조사대상 문화시설 모두에서 빛을 최소한으로 유입시켜 공간의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바람의 소리, 물의 소리를 표현하거나 대지 주변의 자연을 차경하는 등 현상적 요소를 모두 활용하였고, 공간의 수평면에 레벨차를 두어 공간을 가장 동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문화시설에서 안도 다다오의 사례는 중간공간을 형성하여 위계적 질서를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VI. 결론

이 연구는 해외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제주지역의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건축적 특성과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일반적 현황은 입지적으로 도심 외곽의 해안이나 평지에 위치하여 제주의 자연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대부분이 일정 단지 내에 조성되어 있었고, 방문여건에 있어서 회원전용 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입면규모는 사례 모두 저층으로 설계되었고, 일부 사례에서 지면에 거스르지 않도록 지하층을 활용한 공간구성이 나타났다. 공간 외부는 제주의 지역재료를 활용하거나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회색계열의 색채가 대부분이었다. 조사대상 문화시설은 문화시설이 가지는 지역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건축적 특성은 평면형태에서는 정방형과 선형이, 단면형태에서는 경사지형과 평지형이, 관람동선에서는 선택관람형이, 광원형식으로는 측광형과 정광형이 대부분이었다.

셋째, 조사대상 문화시설의 공간적 특성은 사례 모두에서 현상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공간을 동적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으로 이타미 준은 공간의 물적요소를 활용한 공간의 움직임 표현이 미흡하지만 안도 다다오는 빛, 소리, 풍경의 현상적 요소와 함께 수평면에 경사로나 유도동선의 방향성을 두어 동적인 공간을 조성하였다. 이는 안도 다다오의 건축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물의 절, 지중미술관과 유사한 구성임을 볼 수 있다. 제주의 돌, 바람, 물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제주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마리오 보타의 사례에서도 기하학적인 형태, 빛의 극적인 사용, 중간공간을 통한 위계적 질서로 건축가의 특성이 반영되었으나 제

주의 대지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공간을 표현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해외 건축가가 설계한 제주지역의 문화시설은 건축가의 디자인 경향을 살린 건축물과 공간 체험을 통한 관람방식, 지역 재료의 사용, 차경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건축가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건설된 건축물의 패스트 카피라는 의구심이 들고, 특정 단지 내의 건설로 인해 문화시설로서 지역민과의 소통이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문화시설은 건축가의 독창성을 살리면서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 및 지역성이 반영되고 지역민이 쉽게 향유할 수 있는 건축물의 계획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아미(2014.06.30). '한반도 건축, 큰상 받았지만... 시대 증명할 뭔가 결핍', 해럴드경제.  
 고상균(2003). 건축설계론, 광문각.  
 송은옥(2005). 문화시설을 활용한 도시마케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홍철(2004). 교보타워, 대한건축학회지, 48(9): 90-98.  
 안영배, 원정수, 김광훈, 이범재, 임창복(2009). 건축계획론, 기문당.

이광노, 안종혁, 이정덕, 유희준, 윤도근(2012). 건축계획, 문운당.  
 박철민, 홍지호(2008). 제주지역 테마박물관의 공간구성과 관람동선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0(2): 53-61.  
 서민원, 박평춘(2004). 이타미 준의 작품분석에 나타난 지역적 특성과 토속성의 의미 분석, 디자인과학연구, 7(2): 45-52.  
 김신철, 김광배(2010). 마리오 보타의 작품에 나타난 건축수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6(20): 111-118.  
 정한호(2005). 안도 다다오의 박물관 작품에 나타난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13: 81-90.  
 安藤忠雄, 이진민 역(2014). 안도 다다오 일을 만들다, 재능교육.  
 Furuyama Masao, 김미리 역(2010). 안도 다다오, 마로니에북스.  
 대한건축학회, 건축공간론, 기문당, 2003.  
 핑크스 비오토피아 홈페이지 (<http://www.thepinx.co.kr>).  
 휘닉스 아일랜드 홈페이지 (<http://www.phoenixisland.co.kr>).  
 본태 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bontemuseum.com>).

(2014년 10월 10일 접수)  
 1차 심사완료 : 2014년 11월 04일  
 최종수정본 접수 : 2014년 11월 06일  
 3인 익명심사필